

김정일 시대의 북한 교육 정책

조정아 (曹淨雅)¹⁾

논문요약

이 글에서는 김정일 후계체제가 등장하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북한 교육 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치적 변화에 의해 구분되는 각 시기별로 교육 정책과 교육에 부과된 사회적 기능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 지에 주목하였다. 첫 시기는 김정일 후계체제가 등장하는 1970년대로, 이 시기에는 중등교육 수준에서 무상의무교육제가 완성되는 등 교육 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주체사상교육의 전면화를 비롯하여 정치사상교육이 강화되었다. 1980년부터 김일성 사망 이전까지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기에는 교육 정책의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과학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이 강화되었고, 중등교육 차원에서 영재교육이 도입되었으며, 고등교육 체계의 이원화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 하의 북한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학교교육 자체를 정상화하는 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부문에 걸친 사상적 이완을 교육을 통하여 방지하는 한편, 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을 통하여 경제 재건을 도모하는 이중의 과제가 주어졌다.

이러한 교육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쟁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첫째는 사회주의 교육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두 측면인 ‘紅’과 ‘專’, 즉 정치사상교육과 과학기술교육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는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사회주의적 교육 원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평등주의와,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교육의 수월성 추구 중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쟁점에 있어 양 측면, 즉 경제적 발전을 위한 교육의 기능과 교육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사이에서 얼마나 적절한 균형을 취하는가가 북한 교육의 발전 전망을 가늠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주요어 : 북한 교육 정책, 북한 교육의 변화, 김정일 시대 북한 교육

I. 서론

북한에서 교육은 해방 후 국가 형성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이데올로기 동원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해왔다. 김일성 사후에 국가의 총체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교육은 통치담론 재생산을 통하여 체제 단속을 도모하고 경제 회복을 주도할 전문기술자를 양성함으로써 체제 유지와 난국 타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김정일 시대’의 북한 교육 정책의 변화 양상과 교육이 수행해 온 사회적 기능을 살펴보고, 교육 정책 변화의 방향과 쟁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북한 연구에서 ‘김정일 시대’는 일반적으로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통하여 직접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시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김정일 체제하의 교육 정책은 해방 후 국가 형성 시기나 사회주의 산업화 시기의 교육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현재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이전 시기와는 다

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소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그런데 현재의 북한 교육 정책이 보여주는 특징은 김일성 사망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김일성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제와 그 핵심을 이루는 요소로서 김정일 후계체제가 형성되는 시기인 1970년대 초반부터 그 특징이 형성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김정일 시대’를 김정일 후계체제가 등장하는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를 지칭하는 확장된 의미로 사용하고, 이 기간 중 북한 교육 정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김정일이 중앙정치무대에 등장하는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197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김정일 후계체제 등장 시기,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의 사망까지의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 시기, 김일성 사후부터 현재까지의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의 시기로 구분한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김정일이 북한 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굳혀가는 단계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교육 정책의 큰 흐름 역시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북한에서 간행된 일차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문헌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이 된 자료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과 교원신문, 인민교육, 교원선진수첩 등의 교육 관련 정기간행물이다. 북한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1999년 8월에 발표된 교육법이며, 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기에는 1977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근거하여 교육의 기본 원칙과 교육 내용 및 방법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각 시기마다 교육 정책 방향과 세부적인 운영 방침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이다. 교원신문, 인민교육, 교원선진수첩은 북한의 교사와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성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로, 이 자료들은 국가와 당의 교육 정책과 방침이 무엇이며, 각 학교의 교육에서 이를 어떻게 관철시키고자 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북한 연구에는 항상 분석 자료로 공식문헌을 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제약이 수반된다. 이 연구 역시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정책의도를 넘어서서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는 상세히 밝히지 못하였다. 부분적으로 공식문헌을 보완하는 자료로 북한 이탈주민들의 구술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구술자료는 현장연구의 가능성이 전무한 북한교육 연구에 있어 실지로 전개된 교육의 모습에 관한 단서를 제공한다.

II. 김정일 후계체제 등장 시기 : 평등주의적 교육제도의 완성과 정치사상교육의 강화

1972년 10월 제5기 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김정일은 이듬해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선전담당 비서로 선임되었으며, 1974년 2월의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후계자로 공인되어 당 내 실권을 장악해나갔다. 이러한 과정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에 따른 국가기구의 강화와 김일성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제의 확립과 맥을 같이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은 ‘70일 전투’의 발기와 3대혁명소조운동의 본격적인 지도를 계기로 북한사회 전반에서 지도력을 행사하게 되었다.(이종석, 2000, p.506)

이 시기의 북한 교육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던 의무교육연한이 1년의 취학전 교육을 포함하는 11년 간의 초중등교육으로 확대됨으로써 중등교육까지 무상의무교육 제도가 완성되고, 교육 내용의 면에서는 정치사상교육, 특히 당정책 및 혁명전통교양과 주체사상 교양이 극단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의무교육제 실시는 해방 후 ‘민주개혁’ 시기에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천명된 것이었다. 해방

이후 교육기회의 전면적인 확대와 분배 정책은 식민지기에 극도로 억압되었던 주민들의 교육욕구를 조직함으로써 이들을 국가 건설로 자발적으로 동원해내는 체계모니 확보의 중심적인 기제로 활용되었다. 공교육의 확대와 교육 기회의 균등 분배 정책은 이후 시기에 지속적으로 견지되어 왔다. 그 첫 단계로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초등의무교육제 실시가 계획되었으나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실시가 지연되었다가, 1956년 8월에 4년간의 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다. 1958년 11월에는 4년간의 초등교육과 3년간의 중등교육을 포함하는 7년제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다. 산업화 시기 의무교육 연한의 증가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산업화에 필요한 충분한 “일반지식과 기술지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양질의 노동력을 양성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1967년 4월 1일부터 9년제 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이는 1973년에 이르러 11년제 의무교육으로 확대되었다.

의무교육제도의 실시 및 확대와 병행하여 1950년대에 두 차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 차례씩의 학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1950년대 두 차례의 학제 개정의 방향은 기술계통 중등교육의 강화였으며, 이를 통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 및 조기배출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1966년 학제 개정에서는 기존의 3년제 중학교와 2년제 기술학교를 통합하여 5년제 중학교를 신설하였고, 인민학교 4년과 중학교 5년의 교육과정을 의무화하였다. 의무교육 이수 후 취업하거나 2년간의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도록 하였다.¹⁾

1972년 9월에 중학교 명칭을 고등중학교로 개칭하고 고등학교를 폐지하며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어 197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법령 “진반적 10년제고종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를 통하여 학제 개정을 공포하였다. 이 학제개정의 골자는 1년간의 취학전 의무교육과 4년의 초등교육, 6년간의 중등교육을 포함하는 11년간의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는 것과, 이를 위하여 인민학교 입학 연령을 6세로 하향조정하고, 기존의 5년제 중학교와 2년제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6년제 고등중학교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중등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은 이전 시기와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대학 진학 연령은 이전 시기보다 2년이 앞당겨졌다. 이는 단기적인 노동력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고급 인력의 양성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의도한 것이었다. 11년제 의무교육은 1975년 9월에 이르러 전국적 범위에서 완전히 실시된다.

현재 9년제 무상의무교육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남한과 비교할 때 북한의 중등의무교육제도의 확립은 상당히 앞선 것이었다. 이는 교육이 “후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 중대한 사업”이며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근본문제”(김정일, 1973, p.59)라고 보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무교육제도의 조기 실현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그러한 제도가 실현된 “교육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북조선 인민으로서의 “응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이었다.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는 의무교육의 틀 안에서 전 국민을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한 인간형으로 형성한다는 실질적인 기능 이외에도 수령과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킨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 탈북자의 다음과 같은 글은 북한 사회에서 무상의무교육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잘 보여준다.

“매 해 무료교육에다가, 무료 교육을 우리가 받는 데다가, 매 해마다 교복을 맡아주세요, 학생 교복을 무료로 전 국가가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주니까, 돈 일푼 안 받고...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에는 그 선물, 계속 해마다 받구. 10년 동안 매 해 매 년마다 교복을 새로 딱딱 주니까요. 그 새 교복 받을 때마다, 그렇지요, 경애하는 아버지...우리가 받는 모든 혜택을 다 김일성 김정일의 무상혜택으로 연결시켜서...그러

니까 충성을 안할래야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죠.”²⁾

이 시기 북한 교육의 또 한가지 특징은 정치사상교육, 특히 주체사상교육의 전면화이다. 사회주의 사회의 교육에는 ‘紅’과 ‘專’이라 불리는 사상·규율의 교육과 기술·기능의 교육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하며, 정치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紅’ 또는 ‘專’, 둘 중의 하나에 무게중심이 두어지면서 교육의 큰 틀을 형성한다.(A. H. Y. Yang, 1965) 북한에서 초기 산업화 시기에 교육의 무게중심이 ‘專’ 쪽으로 기울어졌다면,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도체계의 확립과 김정일 후계체제가 등장하는 시기는 ‘紅’의 강세가 시작되고 이후 북한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紅’ 주도의 교육의 특성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북한 학교에서 정치사상교육은 이전 시기에도 역사, 문학 등의 교과수업을 통하여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이것이 별도의 독립된 교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는 1967년에 소위 ‘갑산과 사건’이라고 불리는 북한 역사상 최대의 내부 정치투쟁을 경유하면서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도체계가 강화되고, 1970년대 초반 김정일이 정치적 후계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정치적 변화와 긴밀하게 관련된다.

1963년 8월에 개설되었던 “공산주의도덕” 교과는 교과서 편찬 및 시험운형을 거쳐 1968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인민학교와 중학교에서 일제히 수업이 시작되었다. 정치사상교과는 이후 시기에 “위대한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 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현재 1970년대 북한의 중등교육과정 에 관한 연구나 기초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이들 교과가 언제 개설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이러한 정치사상교과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9년에는 인민학교와 중학교에서 “김일성원수혁명활동” 교과가 교육되었으며(혜산교원대학 국어교수법강좌, 1969, p.48)³⁾,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에서 “김일성동지의 로작” 과목이 교육되었다. 대학에서는 1975년에 “김일성동지 로작”, “김일성동지 혁명력사”, “조선로동당정책사” 과목이 신설되었다.

1970년대의 교육과정안에 관한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각급 학교에서 정치사상교과가 어떠한 비중으로 교육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1970년대 전후의 시기를 비교하면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일어난 변화의 간극을 추정할 수 있다. 정치사상교과가 별도의 교과목으로 등장하기 전인 1962년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의 교과별 수업시간수를 분석해보면 자연과학 교과가 32.4%, 기술 및 실습 교과가 37.4%였다. 1983년 고등중학교 과정안은 현행당정책,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 특강, 공산주의도덕 등 정치사상교과의 비중이 11.5%, 자연과학 교과가 39.2%, 기술 및 실습교과가 8.2%로 구성되었다. 산업화 초기에 강조되었던 기술과 실습 교과의 비중이 대폭 축소되고, 정치사상교과가 그 자리를 대체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

산업화 시기에는 주로 노력영웅 등의 모범적 노동자들의 헌신적 노동과 식민지기 항일 빨치산들의 활약상이 정치사상교육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었다. 1960년대 초반의 정치사상교육에서는 집단주의,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 공동재산 절약, 사회주의 우월성 인식 등이 주요 교육 내용이 되었으며(김일성, 1961; 김일성, 1962), 특히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산주의적 로동의 태도’가 강조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무장투쟁의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정치사상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계급교양’의 내용으로 대두되었다. 1967년 경부터 김형직, 강반석 따라배우기가 각급 학교의 교육내용으로 들어왔다. 김일성 중심의 단일한 영도체계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사상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등장한 것이다.

혁명전통교육은 1970년 12월의 5차 당대회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 것을 천명한 이후에 더

육 강화되었다. 혁명 전통과 함께 집단주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가 정치사상교육의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집필위원회, 1969, p.288-338) 이와 같은 정치사상교육의 방향과 원칙은 1977년 9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었다. “테제”에서는 북한 교육의 기본원리로서 당성과 노동계급성의 확립, 교육에서 주체의 확립,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국가의 책임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을 최우선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의 핵심은 당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紅’의 측면이 교육의 전면에 부각되었지만 ‘專’의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었다.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발표된 제1차 6개년 계획의 기본 과제로 공업부문에서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격차 감소, 농업노동자와 공업노동자의 소득 격차 감소,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기술혁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이 설정되었다. 과학기술의 자립화는 3대 기술혁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다.

기술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선진 기술의 도입과 체계적인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북한은 1960년대 말까지 대외무역정책의 기초로서 자력갱생 원칙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고수해왔다. 1968년의 갑산과 숙청 및 소련의 ‘수정주의’ 노선과의 투쟁 과정에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소련 유학과 과학기술자들의 숙청이 이루어지고 외국과의 과학기술교류가 크게 축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인력의 양성에서 강조된 것은 그들을 “주체성있게” 양성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1968년의 연설에서 과학분야에서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울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은 받아들여 그로 인하여 사대주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을 배워와도 주체적 입장에서 자국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김일성, 1968b, p.331-332)

1970년대 전반에는 자본주의 선진국가로부터의 유입된 대규모 오일 달러로 대량의 자본재와 기술을 들여왔으며, 해외로부터 자본 도입 덕분에 6개년 계획목표는 10% 이상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예정되었던 계획기간보다 1년 반 앞당겨 성취되었다.⁵⁾ 그러나 이 계획기간을 경유하면서 외채가 견잡을 수 없이 누적되어 1970년대 후반에는 대외채무 불이행사태가 발생하였고, 경제침체 메카니즘은 장기화되기에 이른다. 외부로부터의 기술 도입도 어려워져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보다는 이미 도입된 서방의 선진기술들을 대대적으로 공장 및 기업소로 보급하는 데 과학기술정책의 초점을 두게 된다. 대학에서는 공과계열과 자연과학 계열에 70% 이상의 학생들을 배치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고(조선중앙년감, 1976, p.338), 특히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 발전에 필요한 기계공학, 전자공학, 자동화공학 분야의 인재 양성이 강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있는 학생들을 단기간에 과학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보다 이들을 ‘혁명화’하는 것이 중요시되었다.⁶⁾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후반에 이르는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정치적 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교육에 대한 경제적 요구를 압도하였으며, 이는 교육의 방향과 내용 면에서 전문성보다는 사상성을 중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III.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 시기 : 과학기술교육·외국어교육 강화, ‘수재교육’의 도입,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이원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김정일 후계체제가 확립되고 경제

적으로는 경제적 침체가 가중되면서 부분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출로를 모색한 시기이다.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조선로동당은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통해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을 공개적으로 과시하였다. 중앙 조직의 경우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정치국이 신설되고, 정치국 내에 정치국과 같은 기능을 하는 상무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김정일은 당내 3대 권력 기구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는 김일성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당내 3대 권력기구에 모두 선출된 것이었다. 또한 당 지도부는 항일혁명 2세대와 전문 지식을 가지 실무형 지도자로 대거 교체되었다. 6차 당대회를 통하여 김정일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의 중요한 과제로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이 공식화되었다.(이종석, 2000, pp.510-513) 교육은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관건적 요소였으며, 특히 식민지기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사회의 주축으로 성장하게 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었다.

교육부문에서 김정일의 영향력이 가시화되면서 이전 시기 교육 정책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시기는 1984년 경이다. 1984년 7월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김정일은 교육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세 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교대자”로 교육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중등교육에서는 정치사상교육의 강화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교육과 외국어교육의 강화에 역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고등교육 부분에서는 최신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현장기술자를 양성하는 단과대학 설립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제도”를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김정일, 1984a) 이러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이후 시기 북한 교육 정책에 반영되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북한 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 과학기술교육 및 외국어교육의 강화, ‘수재교육’의 도입,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이원화로 압축할 수 있다.

과학기술교육 및 외국어 교육의 강화와 수재교육의 도입이라는 교육 정책은 1970년대 이후로 지속된 경제적 침체에 대한 교육적 대응책이었다. 1978년부터 시작된 제2차 7개년 계획기간에 공업생산의 연평균 성장률 목표는 12.2%로 책정되었으나, 계획목표의 수행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이 기간동안 구체적인 경제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고,⁷⁾ 계획기간 중인 1980년 돌연히 “1980년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가 발표되었으며, 이후의 계획기간에는 7개년 계획의 목표보다 10대 전망의 목표 수행이 강조되었다.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를 통하여 발표된 “1980년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는 전력, 석탄, 강철, 유색금속, 시멘트, 화학비료, 천, 수산물, 알곡, 간척지 개간이라는 10대 분야에서 10년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세우고 이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이를 완수함으로써 경제적 침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였다. 경제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은 과학과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이를 담당할 유능한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제6차 당대회에서는 인민경제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의 기초과학부문을 적극 발전시키고 최신 과학기술의 성과를 경제 각 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활성화할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1970년대까지 축소되었던 외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 및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대외무역도 1980년대 들어 확대되었다. 1984년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대회에서 1980년대 말까지 연간수출액을 1984년보다 4.2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수출원천의 확대, 무역의 다양화와 다변화, 신용제일원칙의 준수 등이 강조되었으며, 사회주의국가 및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 나라에 우호적인 자본주의제국”과의 경제협작과 기술교류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이 방침에 따라 같은 해 9월에 합영법이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양문수, 2002, p.73)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교육부문에서 과학기술교육 및 외국어교육이 강화되고 중등교육 수준에서 수재교육이 도입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후반기 들어 과학기술 교육, 특히 수학과 물리학 등의 기초과학과 기초기술 교육과 영어, 노어 등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77년과 1978년에 중등학교에서는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여 수학 등 자연과학 교과목의 교육내용을 개선하였고, 대학에서는 현대수학 이론을 반영하고 응용수학 부문을 강화하였다. 1981년에도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자연과학 교과 내용이 개편되었고(『조선중앙년감』, 1982), 1984년부터 고등중학교 4-6학년 교육과정에서 ‘전자기계실습’ 교과목이 도입되었다. 이 과목은 1990년대 중반 컴퓨터 과목으로 바뀌어 고등중학교 5, 6학년에게 교육되었다. 1982년에는 전국의 고등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학 및 외국어 경연대회가 실시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물리경연대회가 실시되었다.

대학에서는 학과와 교육과정을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부문의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84년에는 대학교원과 연구사들을 기업소와 설계 기관에 파견하여 230여개의 학과에서의 기술자 양성 기준을 결정하고, 대학의 학과를 그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600여개의 과정안을 개편하였다.(리영환, 1993, p.89) 1985년에 기계, 전자, 자동화 부문의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전자계산기학과, 프로그래밍학과, 정보처리학과, 집적회로학과 등의 학과를 설치하였으며, 김책공업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양철도대학 등에 첨단기술 관련 학과를 설치하였다. 1987년과 1988년에도 대학에 첨단산업분야 관련 학과 30여개를 신설하였다. 또한 1988년부터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선발과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1980년대 과학기술 강화 정책과 점진적 대외교류 확대와 관련하여 외국어교육이 강화되었다. 외국어 교육 강화의 필요성은 특히 외국의 선진 과학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결부되어 논의되었다. 김일성은 1978년 전국교육일군대회 연설에서 “외국어를 알아야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서적들을 마음대로 읽고 우리에게 필요한 선진과학기술을 배울수 있다”고 하면서 대학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대학생들이 영어, 프랑스어, 로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중 한가지 이상의 외국어에 정통하도록 교육할 것을 지시하였다.(김일성, 1978, p.164) 김정일도 “세계선진과학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고 과학문화분야에서 국제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가자면 중등일반교육단계에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외국어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밝혔다.(김정일, 1984a, p.95)

1981년 9월에는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서 외국어교육의 본보기단위학교를 5개씩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1985년부터 인민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외국어자모와 생활용어들을 교육하였고, 고등중학교에서는 외국어 수업시수를 증가시키고 회화 교육을 강화하였다. 1980년대 후반 교육계에서는 외국어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외국어 교육 방법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읽고 번역하는 기존의 ‘문법번역식’ 외국어교육 대신에 회화를 위주로 하는 외국어 수업 방법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외국어문장을 읽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여 자기의 사상을 외국어로 발표하며 일기 쓰기, 편지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교원신문, 1987년 11월 12일)

그러나 과학기술교육 및 외국어교육에 대한 강조가 ‘紅’에서 ‘專’으로 교육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학기술교육은 튼튼한 사상교육을 전제로 하였다. 기술교육에서 주체를 세워 학생들을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는 인재로 준비시킨다는 것이 원칙으로 세워졌다. 이는 외국의 선진 과학기술의 도입과 교육이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였다. 1980년대에는 이전 시기에 도입되었던 정치사상교육이 더욱 공고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1980년대 초반에 “특강”이라는 형태로 교육되었던 김정일 관련 과목⁸⁾이 1980년대 중반에 인민학교에서 “친

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시절”로, 고등중학교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활동”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력사”로 과목명이 바뀌면서 정규교과로 운영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정치사상교과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 학생생활 전반에 걸쳐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상교육이 안정화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 혁명의 계승성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효성을 강조하게 된다.

1980년대 북한 교육에서 나타난 획기적인 변화는 중등교육 수준에서 엘리트교육기관이 분화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교육 기회의 확대와 분배 못 지 않게 국가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엘리트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전의 엘리트 교육은 김일성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에 한정되어 왔으며, 중등교육은 평등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 운영되어 왔다. 1984년 9월에 평양제1고등중학교가 설립됨으로써 북한 교육사에서 최초의 엘리트 중등교육기관이 출현하였으며, 정치사상교육이 강조되었던 1960년대 말에 “낡은 사상 관점”이라고 비판받았던 ‘수재론’이 당의 공식적인 교육 방침으로 전면적으로 등장하였다. 김정일은 1984년 4월에 연설을 통하여 20대 박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학자들이 대체로 나이가 든 다음에 학위론문을 쓰다보니 전공분야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창발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으며, “나이가 많으면 뇌수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창발적 사고능력이 약하고 기억력도 떨어진다”는 생물학적 이유를 들었다.(김정일, 1984b, p.77) 이는 김일성이 1968년 연설에서 소위 ‘수재론’에 대하여 비판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일성은 그 연설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수재론>까지 들고나오면서 재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책만 읽게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무슨 특별한 재간을 가진 수재가 따로 있는것이 아닙니다.…우리는 <수재론>을 반대합니다.”(김일성, 1968a, p.329)라고 하면서 교육 평등의 원리와 학생들에 대한 사회정치활동을 강조한 바 있다.

이렇게 한때 강력하게 비판받았던 수재론과 교육의 수월성 추구는 “개성의 발전”과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등장하게 된다. 북한의 교육관련 정기간행물에 실린 글에서는 김정일의 영재교육 정책은 “집단의 발전과 함께 개성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의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사회주의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창조적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길을 명시”한 방침이라고 영재교육 방침을 정당화하고 있다.(최청의, 1993, p.37)

북한이 중등교육 수준에서 이전 시기까지 지속되어 온 평등주의적 교육관에 어긋나는 엘리트 교육기관을 설치한 것은 6,70년대의 자립적인 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문제점이 누적된 결과였다. 1988년 과학부문 책임일군협의회 연설에서 김정일은 북한이 이전 15년간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잘 하지 못했다는 점을 실토하면 이전 시기 과학기술분야 엘리트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김정일, 1988, pp.180-182) 이 연설에 의하면 당시 “인테리들 가운데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 얼마 없”으며 과학원 연구사들은 대학 기간에 사회주의건설과 농촌지원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회적인 로동에 많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대학을 나왔다고 하지만 수준이 높지 못”하였다. 김정일은 이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자들은 대학을 나오고 다른 나라의 대학을 또 하나 나와야 과학원 연구사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고등중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 졸업 후 3년 정도 3대혁명소조원으로 공장생활을 한 후 과학원에서 1년, 외국 유학생이나 연구생으로 3년간 공부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존의 정치사상교육 중심적이고 평등지향적인 교육이 경제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노정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기 엘리트 교육의 실시와 외국과의 과학기술교류 활성화 방침을 채택한 것이다. 과학기술분야의 영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1984년에 최고의 교육시설을 갖춘 평양제1고등중학교가 신설되었다. 이 학교는 일반 중학교보다 우수한 교육 시

결과 교사진을 갖추고 있으며⁹⁾,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졸업생들은 졸업 후 군대나 사회생활 경험 없이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직통생’이 되며, 자연과학 관련 학과에 진학하도록 하고 있다. 평양제1고등중학교 설립에 이어, 1985년에는 각 도소재지에 총 12개의 제1고등중학교가 설립되었다. 1995년에 각 도·시 단위에 26개의 제1고등중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1999년 3월에는 전국 시·군·구역마다 1개교씩 추가 신설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수재교육 방침은 이후의 시기에도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김정일, 1988, pp. 180-182)¹⁰⁾

또한 대학 입학생 모집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기회가 우수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에서 대학 입학의 기준은 성적과 출신성분이다. 각 고등중학교와 기관, 기업소마다 입학 추천 폰드가 배정되고, 각 학교와 기관은 대학입학 자격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무원 시험을 통과한 학생, 또는 일정 기간 근무를 마친 노동자와 군인들 중 추천자를 선정한다. 각 대학에서는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여기서 추천 여부는 성적에 따라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직권과 정실안면관계”가 작용한다. 김정일은 1986년에 기존 입시관행 때문에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학입학시험을 치루지 못하고 간부 자녀들은 실력이 낮아도 대학에 진학하는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김정일, 1986, pp.69-170) 김정일은 이러한 관행이 교육은 물론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도나 지구별로 예비시험을 치루어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본 시험을 치루게 하는 방식으로 실력본위의 선발을 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학입시 제도의 개혁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중등교육 수준에서 엘리트 교육의 강화와 함께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분화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73년에 11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된 이후 교육기회의 확대는 고등교육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제6차 당대회에서 과업의 하나로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천명되었는데 이는 모든 사회성원들의 지식수준을 대학졸업 정도로 높이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민족간부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고등교육기관들을 늘이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십여 개의 대학을 ‘중심대학’으로 지정하고 ‘수재교육’ 차원에서 중심대학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한편, 특정한 산업 분야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단과대학이나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장대학을 증설하고, 텔레비존 방송대학을 신설하는 등 통신교육을 강화하는 방침이 취해졌다.

김정일은 1984년 4월에 고등전문학교를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84년에 20여개의 고등전문학교를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고등전문학교를 점차적으로 3~4년제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도록 하였다. 단과대학은 특정 분야의 전문기술지식과 기술기능을 소유한 현장기사를 키워내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술실습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1984년에 전자, 자동화 부문, 금속부문을 비롯하여 모두 24개의 산업 부문에서 4년제 단과대학과 중등기술인력을 양성하는 1~1.5년제 전문학교가 신설되었다. 1985년에 16개, 1987년에는 6개의 단과대학이 신설되었으며, 1988년부터는 모든 고등전문학교가 주로 전자, 자동화 공업부문, 금속, 기계 공업부문, 간석지부문 등의 4년제 단과대학이나 2년제 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2002년부터는 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대학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대학의 수는 1960년에 78개, 1970년에 129개, 1980년에 170개, 1980년대 말에 260여개¹¹⁾, 1992년에 280여개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핵심 인재를 개발하는 한편, 단과대학과 전문대학,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를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방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였다.

1980년대 이후 엘리트교육이 도입되고 대학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질적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교육 제도는 극소수의 영재는 중등교육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 조기선발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을 유지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의 평등성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표방되는 교육의 평등성이 성분이나 안면관계의 작용에 의해서 고등교육의 기회가 배분되는 실제 교육의 관행과 불일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IV.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의 시기 : 이데올로기 공세와 IT 교육 강화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으로 이른바 ‘김정일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종석에 의하면 ‘김정일시대’는 정치사회적으로 유일체제의 완성기이며, 북한 사회에서 새로운 세대가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이며, 북한 체제의 심화된 위기가 전면적으로 드러난 시기이다.(이종석, 2000, pp.86-87)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 김일성의 사망, 식량난으로 폭발된 경제적 모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위기의 양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 북한의 어려움은 북한의 공식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최근년간 조선의 형편은 50년대 3년간의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로 되었던 전후 시기보다 더 어려웠다”고 보도될 정도였다.(조선중앙통신, 1999년 12월 24일)

이러한 어려움은 교육 부문에도 반영되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학교교육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식량난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교원신문에 게재된 사설(교원신문, 2000년 8월 3일)에서는 교사들이 “수업을 늦게 시작하거나 일찌기 끝내는 것과 같은 무질서한 현상”을 시정할 것과 “학생들의 출석률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94년 이후 상당 기간 교사들에 대한 배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교사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번갈아 결근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한 수업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교사가 자신의 담당 과목이 아닌 교과목까지 두세 과목을 가르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교사를 학생들이 찾으러 다니기도 하였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청년동맹이 중심이 되어 교사들의 식량을 마련하거나 운동장을 갈아서 밭을 만들기도 하였다.¹²⁾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교육의 실시는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 시기 교육에는 학교의 파행적 운영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전 부문에 걸친 사상적 이완을 교육을 통하여 방지하는 한편, 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을 통하여 경제 재건을 도모하는 이중의 과제가 부여되었다.¹³⁾

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에서도 한편으로 통치담론의 재생산, 다른 한편으로 첨단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통한 경제 재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역할이 교육에 주어졌다. 김일성 사망 직후인 1994년 9월 인민교육지에 교육성 보통교육부는 “새학년도 교육강령집행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 글에서는 1994년도 교육의 방향 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모든 교수 교양사업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사상리론에 기초하여 조직진행하며 교수교양의 전과정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교양으로 일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일성 사상 이론의 정당성과 독창성, 영도의 위대성 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이 두어졌던 정치사상교육의 목표는 동일한 내용을 김정일에게 그대로 계승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모든 학생들을 김정일에게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혹되고 절대적인 숭배심을 가지게 하며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도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육 방향에 따라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효성 교육이 강조되었다. 김일성의 유훈을 새기고 역경 속에서도 김정일을 지도자로 믿고 따르는 “충신, 효자”로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최대 과제로 제시되었다.¹⁴⁾

1995년부터 ‘붉은 기 사상’이라는 통치담론이 전 사회적으로 전개되었다. 김일성의 사망, 수해로 인한 식량난과 경제적 파탄, 국제 정세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이 요구하는 대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사회주의 수호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이 이 통치담론의 요지이다.(로동신문, 1995년 8월 28일) 이는 김일성 사망으로 심화된 대내외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중적 정당화 및 체제방어의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활용되었다.(김근식, 1999, p.56) 학생들은 혁명의 ‘붉은 기’를 들고 혁명의 지도부를 엄호하여야 할 주체로 호명되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 속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의 지도부를 엄호하였다는 7연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부활시켰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가장 어려운 고건 속에서도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 바쳐 보위한 육탄의 정신, 총폭탄의 정신”으로, 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김정일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 바쳐야 하는 정신으로 교육되었다.(리정길, 김봉덕, 1996, pp.70-73)

이와 함께 현 시기를 항일혁명투쟁 시기와 연결되는 ‘고난의 행군’기로 명명하고 역경 속에서도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고난의 행군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이와 함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그 기본 내용을 이루었다.(리갑중, 1996, pp.76-79) 1996년에는 인민학교 교육과정에 “공산주의 투사 김정숙 어머니 어린시절”이 도입되어 매주 1시간씩, 고등중학교 과정에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 어머니 혁명력사” 과목이 도입되어 4학년에서 주당 1시간씩 교육되었다.

1997년 1월 조선노동당 총비서 취임으로 시작된 김정일의 권력승계작업은 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를 통해서 주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이 재추대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권력승계작업이 완성된 이후 ‘붉은기 사상’은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 노선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선군정치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상교육이, 한편으로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첨단과학기술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선군정치는 군사력이 기본이라는 관점에서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시하는 군사선행의 정치를 의미한다. 군사력과 ‘혁명적 군인정신’은 사회의 총체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만능의 보검”으로 제시되었다.(로동신문, 2003년 4월 3일) 이에 따라 학생들을 비롯한 전 주민들을 선군정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또한 선군정치는 “총대로 나라의 교정들을 사수하는 교육옹호정치”라는 주장이 전개되었다.(교원신문, 2002년 2월 16일)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에 부과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선군정치사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각급학교 학생들 속에서 ‘영웅따라배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총폭탄 선봉대’가 될 것을 촉구하였다. 1998년 현재 30여개의 고등중학교와 인민학교가 그 학교 출신의 ‘영웅’들의 이름을 따서 개명되었다.¹⁵⁾(연합통신, 1998년 3월 16일) 학교명에 붙여진 영웅들은 대부분 한국전쟁의 전쟁영웅이거나 ‘노력영웅’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보인 인물들이다. ‘영웅’을 많이 배출한 학교명에 ‘영웅’ 칭호를 붙이기도 하였다. 2003년에 영웅칭호를 받은 영웅강계장자산제1중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영웅학습실을 마련하여 동교 출신 영웅 19명의 사진과 소개판을 설치하고 300여점의 직관물을 부착하였다고 한다. 이 이외에도 각 학교에서 군입대 축하모임, ‘복수결의모임’, 영웅들과의 상봉모임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보호하기 위해 폭발하는 수류탄을 몸으로 막거나 초상화를 안고 바다로 뛰어드는 등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심을 발휘한 청소년들을 ‘총폭탄 영웅’이라 칭하고 이들을 모든 학생들의 귀감으로 삼아 이들이 보여준 수령에 대한 숭배심, 역경 속에서도 수령을 진심으로 받드는 “충신의 자세와 입장”, 결사의 정신 등을 본받도록 교육하고 있다.(연합통신, 1995년 9월 11일)

또한 6자회담 이후에는 각 학교를 통하여 반미사상 교양을 강화하였다. 교육성은 중앙계급교양관과 신천박물관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계급교양을 강화할 것을 결정하고, 학교에서 연2회 이상 계

급교양관을 참관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전국적으로 신천박물관 견학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견학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참관내용을 녹화하여 방영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로동신문, 2003년 6월 24일)

정치사상교육 및 체제 수호를 위한 이데올로기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강성대국 건설의 구호 하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난 극복과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관건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199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규정하였으며, 2000년 신년사설에서는 과학기술을 사상, 총대와 함께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규정했다. 2000년 7월 4일자 노동신문 논설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는 곧 혁명에 대한 태도,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이며 “과학기술 발전이 담보하면 혁명도 주눅이 들고 사회주의도 빛은 잃게” 된다고 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집권 체제 구축기에 주로 선군정치사상을 통하여 군사와 사상적 단결을 강조하였던 것과 비교되는 언술이다. 이는 김정일 집권 체제 구축이 일단락된 상태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경제적 활로를 모색함으로써만이 장기적인 정권의 안정과 정당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경제난을 극복하는 도구의 차원과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IT 산업의 집중육성도 이러한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남성욱, 2002, pp.31-33)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20대, 30대의 학사, 박사를 양성하는 것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실현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지름길을 마련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으로 인식하고, IT 분야의 엘리트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IT 분야의 교육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1985년에 조선계산기 단과대학이 평양과 함흥에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관련 학과와 단과대학이 신설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IT 분야의 교육이 본격화되었다. 고등중학교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부분적으로 컴퓨터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 정규 교과로 편입되어 고등중학교 2학년 이상에게 주 2시간씩 교육하고 있다. 제1고등중학교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6학년 정규 과정으로 컴퓨터 수업이 운영되어 자판 연습과 프로그램 작성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규 교과 이외에도 각 학교에서 최고의 인재로 ‘컴퓨터 소조’를 구성하여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해 왔다. 1997년부터는 “전국 고등중학교 학생 프로그램 경연”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전문가들의 나이가 25세 이상이면 이미 늦기 때문에 조기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2000년 12월 교육성은 각 시·도에 2-3개의 컴퓨터 시범학교를 조성하였고, 2001년에는 만경대학 생공전, 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제1고등중학교, 금성제2고등중학교에 ‘컴퓨터 수재반’을 설치하였다. 이 수재반은 전국에서 선발된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강조되어왔던 수재교육을 IT 부분에 집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 수준에서는 1996년에 평양 프로그램 강습소가, 1997년에 김책공대 컴퓨터정보센터, 1999년에는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을 설립하였으며, 2001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컴퓨터 조기교육을 통해 젊고 유능한 프로그램전문가를 육성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는 조치로 “21세기에 상응한 경제력을 다져 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정당화되고 있다.(교원신문, 2001년 2월 1일) 최근 들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조기 컴퓨터교육을 비롯하여 1980년대 중반에 강조되었던 영재교육이 재강조되고 20대, 30대 박사 양성론이 다시 대두되는 등 ‘인재중시방침’이 교육정책의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20대, 30대 박사를 양성함으로써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강성대국 건설의 지름길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평양제1고등중학교 1기 졸업생으로서 19세에 학사후보, 21세에 학사, 25세에 박사가 되었다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의 사례를 들면서 영재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교원신문, 2000년 5월 11일)

최근의 영재교육 강화 주장은 1980년대 중반에 중등교육 수준에서 영재교육 정책을 도입할 때와는 약간 다른 어조를 띠고 있다. 한편으로는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영재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의 영재교육과는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을 “재능있는 사회주의 건설자”로 키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천부적 재능을 절대적으로 보는데 반해서, 사회주의 교육에서는 ‘나라의 재부’인 ‘수재’들을 조기 발견하여 그들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모든 부문에서 모든 사람의 재능을 최대한 성장시킬 수 있게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다.(교원신문, 2002년 5월 16일) 제1고등중학교와 대학의 영재교육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교사들이 “원래부터 수재가 따로 있다고 보면서 수재와 둔재를 갈라놓고 그것을 절대화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양질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경제발전의 관건이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의 평등 추구라는 사회주의 교육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첨단과학기술교육 분야에서 영재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IT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물질적 여건은 그리 좋지 않다. 몇몇 시범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학교¹⁶⁾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컴퓨터교육의 물질적 기초를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는 대부분 학생들의 ‘외화벌이’나 학부모의 지원에 의해서 마련된다. 그러다보니 교육여건과 수준에 있어 학교별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중학교 3학년 이전 단계에서는 컴퓨터에 관련된 간단한 개념과 기본 작동법, 키보드 연습 등을 다루고 고학년에서는 컴퓨터 운영 체제와 각종 사무용 프로그램 및 인터넷 활용 방법, 기초 프로그램 작성법을 배운다.(교원신문, 2001년 2월 1일) 그러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로 컴퓨터를 충분히 다루어보는 것은 일부 학교나 컴퓨터 소조로 편성된 학생들에게나 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북한 교육은 체제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통제와 경제 재건의 최선봉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과학기술 전문가 양성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교육의 기능은 사회 체제의 유지에 필요한 이데올로기의 재생산과 물질적 재생산을 담보하는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나라가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후대교육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며 교육의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교원신문, 2001년 1월 1일) 현재 북한 교육이 수행하고 있는 두 가지의 기능 중에서 실질적인 사회 변화와 경제 위기의 타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후자의 측면이지만 이 측면만이 강조될 경우에는 자칫 사상적 이완이나 체제의 변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 교육 정책의 변화는 실질을 추구하되 사상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서로 방향을 달리하는 이 두 가지 교육의 기능의 연결점을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지킬 수 있고 국가를 부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리갑중, 1996)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일이 북한의 정치무대에 등장한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 교육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축으로 하여 양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사회주의 교육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두 측면인 ‘紅’과 ‘專’, 양자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잡는 문제와 관련된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 교육의 기능 역시 당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양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교육 정책은

합치되거나 때로는 모순되는 경제적 요구와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요구가 결합되는 양상에 따라 ‘紅’과 ‘專’ 사이에서 무게중심이 이동해왔다. ‘專’이 보다 강조되었던 산업화 시기를 지나 유일체제의 확립 및 김정일 후계체제 등장 시기에는 ‘紅’이 극단적으로 강조되었다. 김정일 후계체제가 등장하는 시기에 정치사상교육은 그 제도적, 내용적 기틀이 완성되었고 이후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후 교육에서 ‘專’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이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는 정치적 상황과 국면에 의해 경계지어져 왔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사상적인 이유로 인해서 외국과의 기술 교류와 선진과학기술의 도입이 극도로 제한되었던 것이 그 일례이다. 김일성 사후 교육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는 ‘紅’의 집중적인 강화가 이루어진다. ‘專’에 대한 강조도 정치 담론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최근 북한에서는 경제난을 타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기술분야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과학기술의 낙후성과 경제적 후진성을 교육을 통하여 극복하려는 시도의 성공 여부는 경제 분야의 개방에 발맞추는 교육에서의 ‘專’의 강화가 70년대 이후 북한 교육에서 지속되어 온 ‘紅’의 주도성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달려있다.

둘째, 사회주의적 교육 원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평등주의와, 국가의 경제적 발전의 필요에 의한 인재 양성 및 교육의 수월성 추구 중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두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고등교육 수준에서는 해방 후 초기 개혁 시기에는 고등교육의 기회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소수의 엘리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는 국가 건설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중시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육정책의 중심은 초중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두어졌다. 학령기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무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중등교육은 진학준비교육의 성격이 아닌 종결교육의 성격을 강력하게 지니고 있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고등교육의 기회도 일정한 사회생활이나 군복무 경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주로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평등지향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⁷⁾

김정일 후계체제가 확립되는 1980년대에 이르러 교육의 평등주의적 지향이 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제동을 거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교육의 수월성 문제가 재고되었으며 그 결과 중등교육 수준에서 엘리트 교육이 도입되었다.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를 의미하는 ‘전 인민의 인테리화’도 중심대학과 기타 대학의 이중 구조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평등주의적 지향과는 다른 관점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곧 평등주의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 실현된 엘리트 교육은 엘리트주의가 반영되는 방식 중 ‘경쟁적 엘리트주의’(이돈희, 1992, 393-394쪽), 즉 특권계급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공헌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능력자에게 교육기회의 혜택을 더 많이 주고자 하는 체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이러한 엘리트 교육은 사회적 투자 차원에서 교육의 평등주의적 지향과 공존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도 상당히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재들의 조기 선발과 수재 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수재들은 “한 명이 천 명을 먹여살리는” 국가적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 시기 이후 지속되어온 엘리트교육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발전전략 속에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엘리트교육을 통하여 실력을 갖춘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평등지향적인 사회주의 교육 이념이 아니라 실력보다는 성분과 안면관계가 우선시되고 학력과 전문성보다는 입당 경력이 사회적 지위 상승의 지름길이 되는 교육계 및 사회의 관행이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정당화 기제의 활용이나 입시제도의 표면적 개혁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 두 가지 쟁점은 각각 북한 사회에서 교육이 수행하는 기능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紅’을 강조하는 입장과 교육의 평등주의적 지향을 강조하는 입장은 교육을 통하여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고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주민을 단일한 ‘유기체’로 통합해내는 교육의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관련되며, ‘專’을 강조하는 입장과 인재양성 및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입장은 경제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의 생산력과 기술력을 재고시킴으로써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의 경제적 기능과 관련된다. 이 두 가지 교육의 사회적 기능 사이에서 얼마나 적절한 균형을 취하는가가 북한 교육의 발전 전망을 가늠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근조 (1993). 조선교육사4.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 교원신문 (1987.11.12.).
- 교원신문 (2000.5.11.).
- 교원신문 (2000.8.3.).
- 교원신문 (2001.1.1.).
- 교원신문 (2001.2.1.).
- 교원신문 (2002.2.16.).
- 교원신문 (2002.5.11.).
- 교원신문 (2002.6.16.).
- 김광수 (1990). 북한 경제계획에 대한 평가.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김근식 (1999). 1990년대 북한의 체제 정당화 담론. 통일정책연구. 8(2).
- 김규숙 (1992).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키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인민교육,
1992년 제3호.
- 김일성 (1961).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 김일성 (1962). 보통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김일성 (1968a).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사회주의 교육
학에 대하여
- 김일성 (1968b).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자. 조선로동당출
판사 편(1972). 김일성저작선집 5.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78). 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조선
로동당출판사 편(1982). 김일성저작선집 8.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73).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자. 조선로
동당출판사 편(1999). 과학교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84a).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편(1999). 과학교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84b).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본보기학교로 잘 꾸릴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편(1999).
과학교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86).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로동당출판사 편(1999).
과학교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88).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편(1999). 과
학교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창호 (1990). 조선교육사3.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 김형찬 편 (1990).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서울 : 한백사.
- 남성욱 (2002). 북한의 IT 산업 발전전략과 강성대국 건설. 서울 : 한울.
- 로동신문 (2003.4.3.).
- 로동신문 (1995.8.28.).
- 로동신문 (2003.4.3.).
- 로동신문 (2003.6.24.).
- 리갑중 (1996). 청년학생들을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싸우도록 교양하자. 교원선전수첩.

- 1996년 5호. 평양 : 교원신문사.
- 리영환 (1993). 조선교육사5.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 리정길, 김봉덕 (1996). 청년학생들을 7련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는 현시기 당의 중요한 요구. 교원선전수첩. 1996년 5월. 평양 : 교원신문사.
- 박형중 (2002). 부분개혁체계의 출범, 난파와 복구. 북한 60년의 재조명.
- 양문수 (2001). 북한경제의 구조.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양문수 (2002). 북한경제의 발전과 낙후 및 회생모색기: 1971-2002. 북한 60년의 재조명.
- 연합통신 (1995.9.11.).
- 연합통신 (1998.3.16.).
- 이돈희 (1992). 『교육정의론』. 서울 : 고려원.
- 이종석 (2000).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 역사비평사.
- 이종희 외 (2003).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서울 : 생각의 나무.
- 이향규 (2000). 북한 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서울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성진 (19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테리대군의 양성. 평양:사회과학출판사.
- 조선중앙년감 (1976).
- 조선중앙통신 (1999.12.24.).
- 조정아 (2003). 산업화 시기 북한의 노동교육. 서울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영표 (1988).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최청의 (1993).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교육리론은 우리 시대 교육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 준 지도적 지침. 교원선전수첩. 1993년 2월. 평양 : 교원신문사.
- 혜산교원대학 국어교수법강좌 (1969).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용하자. 인민교육. 1969년 7월. 평양 : 교원신문사.
- 황의각 (1995). 북한의 경제침체 : 개괄 및 총량분석. 황의각 외.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Kim, Sun-ho. (1971). Education in North Korea: Technical, Manpower and Industrial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 Yang, Allency H. Y. (1965). Red and Expert: Communist China's Educational Strategies of Manpower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논문접수 2004년 2월 10일/ 1차 심사 2004년 2월 27일 / 2차 심사 2004년 3월 20일

조정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학 석사·박사과정을 마쳤고,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e-mail: orlando@snu.ac.kr

The Educational Policy of North Korea in the Era of Kim, Jung-il

Cho, Jeong-ah²⁾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educational policy and system in North Korea from the rise of Kim, Jung-il's succession system up to now. I divide the whole period into three in terms of the political phase, and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policy and system in each period.

The first period is from the rise of the succession system in the early of 1970's to the consolidation of it in the end of 1970's. In this period, the free compulsory education which had launched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completed in the level of secondary education. Total 11 years of schooling was offered to the common people. And the political education was intensified very strongly and the Juche Ideology was inculcated on the students.

The second period which is characterized as the consolidation of succession system starts in the early of 1980's. The educational policy in this period shows three notable features. First, the education of natural science, technology, and foreign languages especially English was emphasized. Second, the special education for the gifted children was introduced. Third, the higher education was expanded rapidly. These tendencies were the reaction against the former politically biased education.

The last period begins after the death of Kim, Il-sung in 1994. The educational system operated abnormally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obtaining foo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ade great efforts to preserve the order of society on the one hand, and to develop manpower for economical reconstruction on the other hand, through education. The dual task of building 'strong economic state' by the ideological unification centered the militaries and IT(Information Technology) was imposed on education.

In sum, there have been two issues in North Korean education since the rise of Kim, Jung-il. The one is to maintain the proper balance between 'Red' and 'Expert', that is political education and technological education. The other is to cultivate talented students and to distribute the chance of education equally at the same time.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education and ultimately overcoming of economical difficulties depends on the solution of these issues.

keywords : North Korean educational policy, development of North Korean education, era of Kim, Jung-il

2) Researc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 1) 이 학제 개정의 초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형찬은 1966년의 학제 개정이 기술자 양성의 방향성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공산주의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의 문제에 초점이 두어졌다고 보는 반면, 김선호는 7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기술인력 개발에 초점이 두어졌다고 본다.(김형찬 편, 1990, p.93 ; Kim, Sun-Ho, 1971, pp.122-123)
정치사상교육이 본격적으로 강조된 것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이므로 66년의 학제 개정은 이전의 학제 개정의 연속선상에서 의무교육 연한 증가와 이를 통한 양질의 노동력 배출에 보다 강조점이 두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 2) 탈북자 OOO 구술, 2003년 11월. 무상의무교육제도를 국가와 수령의 시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고이다. 연구자가 북한이탈주민 적응교육에 참가하여 강의를 진행했던 경험에 의하면, 거의 모든 탈북자들이 북한 사회의 장점으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제를 꼽고 있다. 이는 무상의무교육제도 자체가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중심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김일성원수혁명활동 과목에서는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영도의 현명성, 공산주의덕성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수령에 대한 충직성을 함양하는 내용이 교육되었으며, 공산주의도덕 과목에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이 진행되었다.
- 4) 각 교과영역별 구성비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62년 과정안에서 국어 및 외국어 교과가 14.9%, 역사, 지리 등 사회과학 교과가 7.4%, 수학 및 자연과학 교과가 32.4%, 예체능교과가 7.8%, 기술 및 실습 교과가 37.4%였다. 1983년 과정안에서는 1970년대부터 설치된 정치사상교과가 11.5%, 국어 및 외국어 교과가 22.8%, 사회과학 교과가 9.4%, 자연과학교과가 39.2%, 기술 및 실습 교과가 8.2%로 구성되었다. 북한 중등교육에서 국어와 역사 등 일부 어학 및 사회과학 교과에서도 정치사상교육이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교과 구성의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사상교육, 즉 紅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專의 측면에서는, 자연과학교과와 기술 및 실습 교과의 비중이 69.8%에서 47.4%로 크게 줄어들고, 그 중에서도 산업기술과 직결된 교과는 대폭 감소한 대신 이론적 기초를 이루는 자연과학교과가 약간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이 기간의 연평균 성장율은 추정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북한의 공식통계를 통한 추정치는 17.2%~19.7% 정도이며, USCIA의 추정치는 10.4% 정도이다.(양문수, 2002, p.66)
- 6) 김일성이 1968년 김책공업대학에서 한 연설에는 이러한 입장이 잘 드러나있다. “일부 사람들은 천재가 되려면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학을 마치면 인차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 이론에 찬성할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대로 중학을 나오고 인차 대학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일부 기술과목을 공부하는데 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신 학생들이 사회적단련을 받지 못하기때문에 그들을 혁명화하는데서는 그만큼 더디며 따라서 사회에 나가서 다시 혁명화하지 않으면 안될 절름발이인테리를 길러낼수밖에 없습니다. … 중학교를 나온 다음 사회에 몇해동안 내보내는 것으로 하여 생기는 이른바 <손실>보다 사회적단련을 통하여 얻는 리득은 몇배나 더 큰것입니다.”(김일성, 1968b, p.230-231)
- 7) 7개년 계획의 종료 시점에서 북한은 계획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계획이 완수되었다고만 발표하였으며 이후 2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였다.
- 8) 1983년도 과정안에는 “특강”이 포함되어 있고, 1986년 과정안에는 “김정일 동지 혁명력사” 등의 교과로 대체되었다. 탈북자의 구술에 의하면 “특강” 과목은 1982년과 1983년 두 해 동안 교과과정으로 존재했고, 이후에는 “김정일 동지 혁명력사” 등의 교과목으로 바뀌어 김일성 관련 과목과 동등한 위상으로 교육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김정일 후계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1982년 경 김정일 관련 과목이 편성되어 “특강”이라는 형태로 임시적으로 운영되었고, 곧 정규교과로 편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9) 평양시 보통강변에 건설된 이 학교는 7만여평방미터의 부지, 8만평방미터의 건평, 1만여평방미터의 실습장, 10층 건물의 기본교사, 보조건물, 각종 실습실, 녹화편집실, 소조실, 수영장, 체육관, 식당,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다.
- 10) 일례로 2000년 5월 11일자 교원신문에서는 평양제1고등중학교 1기 졸업생으로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19살에 학사후보, 21살에 학사, 25살에 박사가 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수재교육’ 방침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11) 이 중 100개가 공장대학이다.
- 12) 탈북자 구술, 2003년 11월 22일.
- 13)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최근 학교의 운영 상황은 경제난이 가장 심각했던 1990년대 중후반에 비하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교육성은 2003년 5월에 ‘중앙학교꾸리기지휘부’와 각 도 시 군에 ‘학교꾸리기지휘부’를 조직한 데 이어 각급 학교별로 ‘본보기 학교’를 지정하였다. 이들 본보기

학교에서는 중앙기관과 후원단체들이 학교 건물, 기숙사 보수, 실험기자재, 학용품, 석탄 등을 지원하여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이를 범례로 삼아 다른 학교에서도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역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14) 충신, 효자의 대렬을 끊임없이 늘어 나가겠다, 인민교육, 1994년 10월.

15) 예를 들어 배천군의 조옥희 고등중학교, 구장군의 김광철고등중학교, 중화군의 길영조고등중학교, 김책시의 김인택고등중학교와 같이 개명되었다.

16) 북한에서는 2002년 8월에 각급 학교의 명칭을 개정하였다. 즉 고등중학교는 중학교로, 인민학교는 소학교로 개칭하였다.

17) 1980년대 이전 시기에는 대학생의 10%만이 '직통생'이었다.